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범등(구창회)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0년 제194호

## 효강 종령 신년 법어



주가 많고 총명하며, 성격이 밝고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항상 활동적이고 사교적이어서 개인보다는 무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원숭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를 위해 헌신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우리 인류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앞만 보고 달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인간관계는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의 질도 더욱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는 참된 행복의 지혜를 갖고 닦지 못하고 물질 위주의 행복만을 추구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는 중중제왕의 연기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 위주, 금전만능

의 세태라지만 서로가 의지하여 살아가는 중생계의 참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마땅히 아집과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모든 중생은 근본적으로 차별 없이 평등하므로 이웃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불자들 각자가 분별없는 마음으로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보살정신을 구현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나의 행복과 나의 가정, 나아가서는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범신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덕이 충만하고 지혜와 자비가 한층 증진되는 한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옴마니반메후. 옴마니반메후.

총기 45년 1월 1일  
불교총지종 종령 효강 합장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 가정에 범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서원합니다.

2016년 새해는 원후(猿猴) 곧 원숭이가 해인 병신년입니다. 원숭이는 지혜롭고 날쌔 동물로 옛 선조들은 원숭이를 재

## 전 교도의 참회 정진과 진언염송으로 총지종 창교 정신을 되살리자.

제44주년 창교절 기념법회 12월 24일 전국 서원당에서 봉행



▲ 원정대성사와 창종을 같이한 스승들

불교총지종 제44주년 창교절 기념 법사가 지난 12월 24일 총본사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서원당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이날은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주옥같은 진언과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비롯한 정연한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을 갖춘 정통밀교 총지종을 입교계종(立敎開宗)한 날이다.

총본사 서울 총지사에서는 효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통리원장 범등정사의 집으로 제44주년 창교절 기념 법사를 열었다.

효강 종령 예하는 제44주년 기념법회에서 법문에서 "인류가 무너지고, 사회가 어려운 지경이라도, 종조님의 창교 정신을 되살려, 진언염송과 참회정진으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룹시다. 또한 내가 있는 자리가 곧 성불의 자리임을 명심하고, 누구나 가는 곳마다 주인임을 자각하여 나와 내가 하나고, 모두가 부처라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라고 성취와 새로운 종풍 확립을 서원하였다.

통리원장 범등정사는 창교절 설법에서 "모든 중생이 하나 되어 유정과 무정의 구

별 없고 차별 없는 마음으로 참회 정진하면, 서로가 좋은 인을 짓고 좋은 과를 받게 됩니다." 동참하신 교도들의 열정소멸과 복덕증장을 서원했다.

### 지면안내

- 1면 효강 종령 예하 신년법어
- 2면 김기자가 가다 - 실지사 부림회
- 3면 교구장, 지회장 연석회의 사회복지재단 연말 이웃돕기
- 5면 중앙총회의장, 교구장 신년사
- 6면 주요종단 중정 법어
- 7면 주요종단 총무원장 신년사
- 9면 교계종합

###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흥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 범등 통리원장 신년사



바가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서원합니다. 일시무시일(一始無始) 하나의 시작은 하나의 시작이 아니며 일종무종일(一終無終) 하나의 끝남은 하나의 끝남이 아니다

이라는 옛 고전의 말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일상의 희로애락을 느끼며 '탐진치'의 삼독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큰 수레바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가 오늘로, 오늘은 내일로 이어지는 윤회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모두 병신년 366일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 이 선물은 우리가 쓰기 나름이니 좋은 씨앗을 뿌리고 부지런히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꽃

과 좋은 열매를 거두어 회향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인생을 지배하는 법칙인 인연과 인과를 굳게 믿고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새해에도 우리는 행복하고 보람 있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인연인 과이니 더 하심하고 수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만족과 감사 그리고 행복한 삶을 약속해 줄 것입니다.

교도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합니다.

총기 45년 1월 1일  
통리원장 범등 합장

교도 여러분 새해 인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미년이 지나고 희망찬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며 소원하는

謹賀新年  
총기 45년 · 불기 2560년

## 불교총지종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 종령 효강 대종사

#### 통리원장 범등

중앙총의회 의장 수 현	중앙교육원장 화 령
사감원장 범상인	동해중학교 이사장 법 등
총무부장 인 선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 우
재무부장 우 인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정인화
교정부장 원 당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안 성
사회부장 지 정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지 정

중앙총의회 의원	법장원	총지종보 및 종보통신원
총지종 유지재단	밀교 연구소	만다라요양원 · 바라밀 공부방 · 초록어린이집
전당건설 위원회	(재) 사회복지재단	일원어린이집 포레스트7단지 어린이집
통리원 임직원	각 사원 주교 및 스승	각 교구 신정회 일동



김기자가 가다

# 실지사는 우리집 모두가 한가족 실지사 각자 신행단체 '부림회'

### 자발적인 결성

12월 27일 실지사(주교:범우 정사) 자성일 법회가 끝나자 공양간은 분주했다. 10여 명의 각자님들이 함께 들어와 공양을 시작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안부를 물으며 공양하는 각자님들은 다름 아닌 실지사 신행단체 「부림회」 각자님들이다. 이 날은 부림회의 정기총회가 있는 날이기도 했다. 지난 일 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내년의 주요활동 계획을 잡는 자리다.

「부림회」 회장 관득 각자는 총지종 입교개종(立敎開宗) 당시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을 따라 진각종에서 부터 신행을 이어온 교도다. 201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의기투합한 실지사 각자님들은 본격적인 신행단체 「부림회」를 결성한다. 구성원은 최고령인 대성(정태우)각자님을 비롯한 총 9명에 실지사 주교 범우정사를 명예회원으로 총 10명이다.



▲ 부림회가 만든 실내 탁구장

정식 가입은 안했지만 사원에서 행사가 있거나 환경을 정리하는 일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각자님들도 7-8명 더 있다.

### 우리는 형제

부림회의 첫 활동은 봉축 연등 만들기과 사원 내외의 연등 설치였다. 회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모두가 내 집일처럼 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내 가정의 잔치를 준비한다는 기분으로 사원 내외의 청소와 환경정리도 했다. 봉축 연등회에도 참석하여 종단의 연등 행렬을 이끌었다. 실지사 교도들도 신명나는 연등 축제를 함께 즐기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온몸으로 느꼈다.

회원들은 새봄을 맞아 신축 실지가 정원을 아름답게 가꿨다. 꽃나무를 심고, 잔디가 잘 자라도록 관리했다. 특히 교도들이 언제든지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테라스 공사도 자발적인 기금으로 직접 공사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계궁을 아름답게 장엄하고, 교도만이 아니라 지나던 이웃 주민도 언제나 들어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부림회 회원들의 작은 보시로 이룬 것이다.

회장 관득(손기성)각자는 "실지사는 지난해 기존의 사원을 헐고 신축한 사원입니다. 그 동안은 사원의 구조가 가정집을 개조한 상황이라 수행 환경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니다. 부림회 각자님들은 신축 사원을 전국에서 제일가는 수행도량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언제와도 내 집같이 편안한 분위기와 정통 밀교 도량으로서 장엄함을 증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설명했다.

또한 "이전의 사원에서는 각자님들이 모여 법담을 나누고 서로의 수행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사원이 신축되면서 각자님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회가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습니다."며 실지사 신축으로 교도들의 단합과 신행 활동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신행은 어린시절 그 기초가 다져집니다.

역시 실지사의 창건을 함께한 고운(김승원) 각자님은 자제분의 나이가 올해 44세로 종단 창종 역사와 같다. 간난애가 건장한 성년이 되고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내내 보살님과 각자님은 진언연송과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이루어졌다 했다.

고운 각자님은 "하루는 사원에 오기위해 집에서 걸어오고 있는데 삼양동 사거리의 한 교회에서 유치원 아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예배를 마치고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 우리 실지사도 저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기슴 한켠으로 부러웠습니다."며 "요즈음의 총지종 교회의



▲ 실지사 각자 신행단체 부림회 회원들

어렵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교화의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가족이 함께 와서 영·유아들을 편안히 맡기고 부모들은 정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사위, 며느리, 손자들이 같이 오고 싶어도 마땅히 아이들을 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힘든것이 현실입니다."라고 자신들의 종교가 자식을 거쳐 손자까지 이어 지기를 바랬다.

부림회 각자들의 신행담은 바로 총지종의 역사였다. "하루 중에 행복함은 새벽불공 함에 있고, 칠일 중에 행복함은 자성일에 빠짐없이 불공정진 함에 있고, 한 달 중에 행복함은 월초불공 함에 있고, 일 년 중에 행복함은 새해불공 함에 있고, 일평생에 행복함은 평생으로 변함없는 그 종지에 있느니라."는 종조 원정대성사님의 법설을 믿고 평생을 그대로 실천한 모습을 각자님들의 얼굴에 쓰여 있었다.

부림회 각자님들은 마지막으로 "종단이 힘드는 것은 알지만 유치원부터 초, 중, 고까지 일관된 종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받은 교육은 평생을 자신의 가치관을 지배한다고 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자란 아이는 평생 불자로서 윤택한 삶을 살아 갈 것입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 교화에 종단의 힘을



▲ 실지사 정원에 조성한 테라스

기우려 주기를 당부했다.

병신년 새해에는 원승이처럼 민첩한 부림회 각자님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회원도 더 늘어나고, 이웃과 교도를 위한 봉사 활동과 염승정진에서는 물러남 없는 용맹정진하는 신행단체가 되기를 바란다. 실지사=김종열 기자

## 불교 총지종 총기 45년 인사발령

소 속	법명	발령 사항	발령 일자
성화사	지광( )	성화사 근무를 면함. 법화사 근무를 명함.	총기44. 12. 28.
성화사	수심정( )	성화사 주교 근무를 면함. 법화사 주교 근무를 명함.	총기44. 12. 28.
밀행사	금강륜( )	밀행사 주교근무를 면함. 성화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4. 12. 28.
법화사	도현( )	법화사 주교근무를 면함. 밀행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4. 12. 28.
법화사	자인행( )	법화사 근무를 면함. 밀행사 근무를 명함.	총기44. 12. 28.

#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강순시	12/16	10,000
	한영란	12/21	1,000,000
	장진식	12/21	20,000
	이희권	12/2	20,000
	이희권	12/22	20,000
관성사	황성녀	11/27	10,000
	김대기	12/16	10,000
	무명씨	12/18	30,000
	인선	12/21	20,000
기로	해정	11/27	10,000
	해정	12/16	10,000
	대관	12/21	10,000
	밀공정	12/21	10,000
	법수원	12/21	10,000
	법장화	12/21	10,000
	법지원	12/21	10,000
	불멸심	12/21	10,000
	사홍화	12/21	10,000
	상지화	12/21	10,000
	수증원	12/21	10,000
	선도원	12/21	10,000
	총지화	12/21	10,000
	일성혜	12/21	10,000

원봉	12/15	10,000	
지선행	12/15	10,000	
단음사	법연지	12/17	10,000
덕화사	반야심	12/21	10,000
밀인사	정정희	11/30	5,000
	이채원	12/21	10,000
	이연주	12/21	10,000
	이기상	12/11	10,000
	안옥진	12/11	10,000
	이성수	12/11	10,000
	박주연	12/11	10,000
	이수연	12/11	10,000
밀행사	무명씨	12/18	10,000
만보사	정덕순	12/1	10,000
백월사	이갑진	12/16	10,000
벽룡사	양정현	12/7	10,000
	양지현	12/7	10,000
수인사	무명씨	12/1	10,000
	정순득	12/15	10,000
선립사	심지장	12/15	10,000
	황귀석	12/17	10,000
실지사	법안정	12/11	20,000
	정경자	11/26	10,000

박병성	12/16	20,000	
조성우	12/1	10,000	
송우섭	12/23	10,000	
실보사	이순옥	12/15	10,000
	이순옥	12/23	10,000
일원어린이집			
	강경화	11/26	10,000
	강경화	12/24	10,000
	김용미	11/27	10,000
	하재희	11/26	30,000
	김지연	12/25	10,000
	이준동	12/25	10,000
	구미자	11/30	10,000
	이향례	12/25	10,000
	이현직	12/25	10,000
	김지영	11/27	10,000
운천사	무명씨	12/18	10,000
	무명씨	12/18	1,000,000
	무명씨	12/18	100,000
정각사	변순개	12/7	10,000
	조성화	12/11	10,000
	홍귀선	12/7	30,000
	탁상달	12/1	20,000

탁상달	12/21	20,000	
김문수	12/15	10,000	
지인사	승효재	12/15	10,000
	지성	12/15	10,000
	허성동	12/22	30,000
초록어린이집			
	황화성	11/25	30,000
총지사	법등	11/30	30,000
	장동욱	12/3	30,000
	구나영	12/11	10,000
	김병관	12/11	10,000
	박정희	12/15	10,000
	신용도	12/15	10,000
	백지순	12/13	30,000
	손경옥	12/19	1,918
	손경옥	12/25	10,000
통리원	김평석	12/11	10,000
홍국사	지경	12/15	20,000
해정사	최영례	12/21	10,000
	정은선	12/16	10,000
화음사	무명씨	12/1	10,000
	무명씨	12/16	10,000
사원무기명	김갑선	12/21	10,000

무명씨 11/30 20,000

막내우체국 12/24 100,000

**11월26일부터 12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문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괴산수련원 집중수행 및 종단 현안 논의

12월 17일 교구장, 지회장 연석회의 개최



▲ 대전 만보사에서 열린 연석회의

불교총지중 통리원은 12월 17일 대전 만보사에서 전국 교구장 및 신정회 지회장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종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통리원에 건의하였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 서울·경인 교구장 범우정사, 부산·경남 교구장 정인화 전수, 대구·경북 교구장 안성 정사, 충청·전라 교구장 지정 정사, 백월사 주교 환수원 전수, 만보사 주교 승원정사

와 김은숙 서울·경인 지회장, 신인복 부산·경남 지회장, 대구·경북 최윤정 지회장, 민순분 충청·전라 지회장 및 각 지회 부회장, 박정희 총지사 신정회장 등 이 참석했다.

개회발사에 이어 통리원장 법등정사는 "오늘 회의를 통해 종단의 당면한 과제들을 교도 대표들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 바랍니다" 며 인사말을 전했다.

회의에서는 포항 수인사 수인회 활동 보고, 각 사원 특약전 활성화 방안, 관정 수계 봉행, 괴산수련원 교도 수행 등을 토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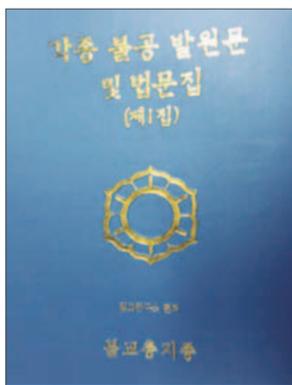
포항 수인사 수인회 활동 보고에서는 사찰요리 강좌를 통해 결성된 수인회가 지역 사회와 사원에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다양한 활동으로 교회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을 전했다.

관정수계봉행 봉행은 각 사원별로 인원을 파악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정했다.

괴산 수련원에서는 최근 시행된 스승들의 밀교관법과 묵언 수행에 관한 보고와 차후 교도들이 원할 경우 중앙교육원과 협의하기로 했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통리원장과 각 교구장 및 지회장들은 앞으로 이런 자리를 정기적으로 가지고 다양한 의견소통을 통해 총지중이 더욱 활발한 교화 발전을 이루자고 비로자나 부처님께 서원했다.

### 각종 축원불공 『발원문 및 법문집』 발간



▲ 총지중 각종 불공 발원문 및 법문집

밀교연구소(소장 법경 정사)는 종단의 각종 축원불공 시에 독송할 『발원문 및 법문집』을 발간하였다. 49재 천도불공에 필요한 발원문과 법문집은 이미 제작된 바 있으나, 각종 축원불공에 필요한 발원문과 법문집이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축원불공시에 발원문과 법문자료들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기존의 자료와 사원 스승님들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를 참고하여 각색하였고, 일부 내용은 창작한 것들이다.

발간을 주도한 법경 밀교연구소장은

"화도방편(化度方便) 가운데 제일의 불공이며, 불공 가운데 으뜸이 간절한 발원과 여법한 법문"이라고 말하면서 "발원문과 법문은 법향(法香)이나 감로수(甘露水)와 같은 것으로, 망자(亡者)와 생자(生者) 모두를 청정일념에 들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라며 발원문과 법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새해 불공 발원문을 비롯하여 각종 서원성취 불공, 결혼, 출산, 생일 등 총 30여 종의 축원불공 관련 발원문과 법문이 수록되어 있다.

### 『종조법설집』 윤독회 제5차 모임 성료

밀교연구소(소장 법경 정사)는 지난 12월 17일 대전 만보사에서 『종조법설집』 윤독회 제5차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 『종조법설집』 가운데 「교상과 사상」 편의 '각종 논설'에 대한 윤독과 토론이 이어졌으며, 특히 용어에 대한 해설과 함께 자구 및 문구, 맞춤법, 내용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2014년 12월에 시작된 모임은 지난 한 해 동안 4차례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1기의 연구활동과 수정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1기의 다음 6차 모임은 1월 20-21일 이틀간 성남 법전사에서 개최하기로

장정 결정하였다. 현재의 윤독회 모임은 제1기로서 교구장이 추천한 성직자와 법랍 10년차 이상의 전수들로 구성되었으며, 1기의 활동이 끝나면 곧이어 2기 모임이 갖추어질 예정이며, 2기는 기로와 원로 스승, 법랍 11년 이상의 전수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 「희망은돌 따뜻한 겨울나기」백미 6,000kg 지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이사장 법등 정사)은 12월 29일 강남구 사회복지과를 통해 불우 이웃과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희망은돌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에 백미 6,000kg을 전달했다.

백미를 지원한 기관은 하상장애인복지

관, 강남구직업재활센터, 강남구 노인통합 지원센터이다.

이사장 법등 정사는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이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연말연시를 맞아 통리원이 위치한 강남구 불우 이웃과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에 백미를 지원했습니다"

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서원합니다."며 지원 동기를 밝혔다.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은 현재 어린이집 3개소, 공부방 1개소, 노인요양원 1개소를 운영하는 명실 상부한 불교복지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복지=김평석 교무

### 부산·경남 교구 교화의 어머니 정각원 대전수

제32주기 추선법회 봉행



▲ 정각원 대전수 제32주기 추선법회

12월 28일 부산 정각사에서는 부산·경남교구의 초석을 마련하고, 교화의 문을 연 '정각원' 대전수의 제32주기 추선법회가 봉행되었다. 이날 법회는 부산·경남 교구 스승님들과 교도들이 동참, 스승님의 극락왕생을 서원했다. '정각원' 대전수는 총기 원년에 정각사 주교의 소임을 맡아 교화를 시작하였다. 총기9년에는 통리원 교정부장을

맡아 통리원 교정 업무의 기틀을 마련하고, 총기10년 부산교구장에 임명되었다. 정각원 대전수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언 밀법을 전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행과 교화에 매진하였다. 스승님의 교화를 받고 수행을 이어가는 교도와 스승들은 총지중 교화의 불꽃이 다시 한번 들불처럼 피어나기를 서원했다. 정각사= 이상록 통신원

### 한일불교문화교류 협의회 여성부

동지 팔죽 나누기 성황



▲ 한일불교 여성부 팔죽 나누기 행사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 스님, 사무총장 법등 정사)는 12월 27일 부산 양정동 송상현동상 앞 시민공원에서 '동지 팔죽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교류협 사무총장 법등정사, 총지중 중앙

종의회 의장 수현 정사, 사무부총장 원효종 총무원장향운스님과 교류협 여성부 백명숙 회장 등 회원들이 동참했다.

사무총장 법등 정사는 "동지를 맞아 부산 시민들에게 새해 액운을 막아주는 팔죽을 공유하게 되어 즐거운 마음입니다.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여성부 회장님 그리고 회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해 되시기를 서원합니다."라고 행사를 준비한 여성부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양정동 부산 시민 공원에는 500여 명의 부산 시민들이 따뜻한 팔죽을 공양 받았다.

부산 정각사=이상록 통신원

###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포항 수인사 안성 정사 재선임



▲ 대구·경북교구장 안성정사

총지중 대구·경북교구는 12월 14일 교구회의를 열고, 포항 수인사 안성 정사를 교구장에 재 선출했다.

안성정사는 선출 후 "지난 3년 동안 교구 여러 스승님들의 도움으로 교구장의

중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어느 교구보다도 화합과 교화에 매진하는 대구·경북 교구가 되기를 서원합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충지정보 인터넷 뉴스(www.chongjinews.com)

謹賀新年  
총기 45년 · 불기 2560년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관성사

주 교 : 정사 인 선  
전수 정계월

☎ 02-736-0950

#### 밀인사

주 교 : 정사 원 당  
전수 묘심해

☎ 02-762-1412

#### 법천사

주 교 : 정사 법 경  
전수 덕 현

☎ 031-751-8685

#### 벽룡사

주 교 : 정사 법 일  
전수 자 행정

☎ 02-889-0211

#### 총지사

주 교 : 정사 법 등  
전수 인 덕 심

☎ 02-552-1080

#### 실지사

주 교 : 정사 법 우  
전수 인 지 심

☎ 02-983-1492

#### 정심사

주 교 : 정사 화 령

☎ 02-491-6888

#### 지인사

주 교 : 정사 지 성  
전수 승 효 제

☎ 032-528-2742

#### 시법사

주 교 : 정사 서 강

☎ 032-522-7684

# 도약을 위한 첫걸음!



지현 전수 단음사



▲ 수련에서 묵언 정진하는 전수들

익숙치 않은 곳에서의 새로운 경험은 누구에게나 설렘과 걱정스러움이라는 양면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닐까? 3박4일이라는 과산 중원사 수련의 일정도 내겐 그런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어느덧 승적 7년이라는 아마무시(?)한 시간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수련의 과정을 짧은 기간이나마 체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며칠간이지만 익숙했던 것들과 격리라 약간의 긴장감이 교차되는.....

갈수록 침체되어가는 안타까운 교화의 현실을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해보고자 하는 중단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한 첫 번째 기수, 승적자 제일 막내들로 구성된 7명 전수님들의 의욕은 첫 만남의 광장인 대전역에서부터 그 활기를 띄웠다.

제각기 몸집보다 큰 가방을 끌고 이른 시각부터 기차를 타기 위해 서두르느라 힘들었을 법도 한데 모두 밝은 얼굴, 미리 통보된 뻘뻘한 일정의 힘든 수련일정에 대한 염려스러움은 아예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오히려 이번 수련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배우 자신의 수행은 물론이며 교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열정과 에너지 충만한 기운을 첫 만남부터 느낄 수가 있었다.

대전역으로 마중 나오신 만보사의 승원님 덕분에 편히 중원사에 도착하여 숙소를 배정 받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본격적인 일정이 바로 시작되었다.

“7이라는 숫자가 성취수인데 이번 참가 인원이 7명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종단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담긴 화령 교육원장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관법과 정근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듣고 ‘묵언’이라는 목적어를 생애 처음 선물 받은 즉시 침묵과 고요만이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했다.

지금까지 일상에서 쉽게 내려놓지 못한 생각들과 번뇌들로부터 자유로워져 ‘아자관’과 ‘옴마니반메훔’ 정근이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익혀 일상 수행에서나 교화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수련의 핵심이었다.

교육원장님의 열의에 찬 지도 덕분에 동기생들의 화합으로 수련이 원만히 회향되었기에 심히 감사할 따름이다.

또한 후배들의 수련에 방해가 될까봐 불편한 가운데서도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중원사 기로 스승님 두 분과, 며칠간이나 따뜻한 공양을 준비해주신 나노고가 많으신 보살님, 눈 오는 험한 길도 마다 않으시고 터미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신 각자님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한가지... 지면을 빌어서나마 축스러운 잡화를 해야 할 것 같다. 선물로 받은 ‘묵언 수행’의 목걸이가 하루도 못가 속속에서는 그 빛을 퇴색하고 말았음을... 자비심 많은 부처님의 도량 중원사, 산사의 겨울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포근했다.

또한 여럿이 내는 목소리가 한 리듬을

따라 어우러지니 전체가 하나가 된다는 일체감과 소리의 진동에서 오는 묘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하여 저녁 9시에 마무리 되는 3박4일 동안의 일정은 관법과 정근의 반복이었다. 원래의 일정에 경험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날씨 사정이 좋지 않아 잠깐의 산책으로 만족해야 했다.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처음 입수할 때의 긴장감은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모두에게 아쉬움만 남아 있는 것 같았다.

마지막 날 밤엔 모두 함께 모여, 수련을 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다.

관법 시 수식관을 시작으로 좀 더 단계적으로 접근해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 ‘아자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개인은 물론 교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의 시간이 되었던 만큼 현직 스승이라면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는 것과 앞으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는 긍정적 의견이 종합적이었다.

교육원장님의 열의에 찬 지도 덕분에 동기생들의 화합으로 수련이 원만히 회향되었기에 심히 감사할 따름이다.

또한 후배들의 수련에 방해가 될까봐 불편한 가운데서도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중원사 기로 스승님 두 분과, 며칠간이나 따뜻한 공양을 준비해주신 나노고가 많으신 보살님, 눈 오는 험한 길도 마다 않으시고 터미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신 각자님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한가지... 지면을 빌어서나마 축스러운 잡화를 해야 할 것 같다. 선물로 받은 ‘묵언 수행’의 목걸이가 하루도 못가 속속에서는 그 빛을 퇴색하고 말았음을... 자비심 많은 부처님의 도량 중원사, 산사의 겨울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포근했다.

# 달아 내 가슴에



혜광 정사 정각사



▲ 밀교 관법(중자관)을 수행하는 정사들

과연 어떠한가? 어떤 프로그램일까? 밀교관법과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 정근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추계강공과는 또 다른 모습의 교육에 기대를 하면서 마음을 설레이며 과산 중원사에 도착했다.

화령 교육원장님으로부터 3박 4일 동안의 일정 내용과 생활 규칙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자 관법’과 ‘옴마니반메훔’ 정근에 대한 개요를 참석한 6명의 정사님들과 함께 공부했다.

아자 관법에 앞서 사마타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고정하여 동요하지 않게 집중하는 것이며 위빠사나는 오온과 육입체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현상에 대하여 주시하는 것을 관찰하라고 했다. 아자 관법, 화두를 물고 참선하는 ‘이 뭇?’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호흡이 고르게 되면 ‘아자’에 앞서 월륜관을 생각하십시오. 그 위에 자비심이 가득한 연꽃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자’를 조심스럽게 올려 놓습니다. 먼저 월륜관만이라도 집중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다.

나는 노란달을 가져왔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가져온 달이 어느 순간 달이 아니고 해로 바뀌었다.

다시 보름달로 교환했다. 그 보름달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조금씩 둘레가 무너지고 갈아먹은 달로 조금씩 바뀌고 있

었다.

달이 무너지는가? 내가 무너지는가? 달의 무너짐을 알아차리고 빨리 동그랗게 되도록 마술을 걸어라.

나의 머릿속에는 갑자기 질주하고 있는 버스 한 대가 나타났다.

폭탄을 실은 채 승객과 달리는 버스 속도를 늦추면 자동으로 폭발되는 버스. 폭발되지 않게 달려야 하는 버스 ‘스피드!’?

달의 형상이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되어야 한다.

내가 호흡을 하며, 숨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나를 알아차릴 때 달은 점점 내안에 들어오고 있었다. 달의 형상이 유지되지 붉은 연꽃이 나타나 없어졌다. 그리고 연꽃 위에 ‘아자’를 얹었다. 아직은 단순한 그림책의 그림에 불과했다.

여기까지 만드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교육원장님은 지속적인 몰입으로 입체적인 아자가 만들어지거든 ‘아자’가 내가 되고 내가 ‘아자’가 되는 합일로 들어가 본생의 이치를 생각하라고 했다. 모습이 흐트러지면 아자관상도를 가끔씩 쳐다보면서 형상을 마음에 새기며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연습하라고 당부했다.

옴마니반메훔 정근, 음악과 함께 귀전을 맴도는 티벳어로

된 ‘옴마니반메훔’에 맞추어 연습했다. 은근히 중독성이 있다. 명상을 할 때는 가끔 잔잔한 음악은 있었지만, 정근을 음악 없이 조용히 하는 것에 익숙한데, 음악과 같이 하니 생소하다. 향마염송이 아닌 부드러운 음률과 같이 소리 내어 하는 염송은 노래로 들려진다. 처음에는 단순히 옴마니반메훔만 따라 했다.

서서히 반복되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젊었을 때 1000배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다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해지지만 몇 배배가 지나가면 아픔은 없어지고 무의식으로 내가 밖에서 절을 하는 내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내가 몰입하고 싶어서 몰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였다. 정근은 내가 그 속에 있고 몰입이 된다.

지금 ‘옴마니반메훔 염송’은 음악과 같이 소리로 할 뿐이다. 쉽게 동화되지 않는다.

집중을 못하는 것인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인가? 계속 입으로는 ‘옴마니반메훔’을 외지만 나와 소리는 같이 길을 걷고 있는지 몰라도, 내 머릿속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음악소리가 정겨워진다. 언제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갈까?

입정 때는 손을 연꽃봉우리처럼 가슴에 모은 후 정근을 했다. 연꽃을 형상화한 모습을

나타냈다. 정근은 계속되고 있는데 나는 ‘옴마니반메훔’ 정근의 손을 잡지 못했다.

절에 와서 배운 것을 익숙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할 것 같다.

3박 4일 동안의 교육은 짧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어떤 하나의 일치를 요구하는 것보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심신을 청정하게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의의가 있었다.

또한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심신청정 프로그램이 더욱 체계화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프로그램을 준비한 교육원에 박수를 보낸다.

## 謹賀新年

총기 45년 · 불기 2560년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각사

주 교: 전수 법상인  
전수 묘 홍  
정사 혜 광

☎ 051-552-7901

### 관음사

주 교: 전수 정인화  
☎ 051-896-1578

### 단향사

주 교: 정사 혜 봉  
☎ 055-644-5375

### 덕화사

주 교: 정사 시 정  
전수 원만원  
☎ 051-332-8903

### 밀행사

주 교: 정사 도 현  
전수 자인행  
☎ 055-354-3387

### 법성사

주 교: 정사 법 선  
☎ 051-468-7164

### 삼밀사

주 교: 정사 서 령  
전수 혜원정  
☎ 051-416-9835

### 성화사

주 교: 전수 금강륜  
☎ 051-254-5134

### 실보사

주 교: 정사 덕 광  
전수 보 현  
☎ 052-244-7760

### 운천사

주 교: 전수 정원심  
☎ 055-223-2021

### 일상사

기초승: 수 행 월  
☎ 055-352-8132

### 자석사

주 교: 정사 수 현  
전수 자심관  
☎ 051-752-1892

### 화음사

주 교: 정사 룩 경  
전수 법수연  
☎ 055-755-4697

# 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수 현  
충청북도의회 의장

교도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병신년 원숭이 해입니다. 예로부터 원숭이는 그 몸짓이 빠르고 두뇌가 영민하여 12간지 중에는 가장 똑똑한 동물입니다. 원숭이를 간지로 가지신

## 수행정진으로 부처님의 법을 이어가자

분은 다른 해보다 지혜로운 한해를 보내시고, 다른 분들도 민첩한 행동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님은 영화로운 삶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출가 수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상황과 사회적 지위를 모두 버리고 부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리하기 힘듭니다. 가장 이라면 자신이 지켜야 할 가정도 있고, 사회에서 맡은 직무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인연으로 생겨난 가족은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가 불자로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수행에 매진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총지종 교도들은 그 방법을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불공과, 매주 사성일 법회, 매일 월초 불공, 매년 새해불공을 통해 수행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밀교는 진언염송을 통해 즉신성불의 대도를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부처님의 그 어떤 방법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최상승의 법입니다. 교도여러분 병신년에도 변함없는 진언염송 수행을 통해 즉신성불의 대업을 이루시고, 가정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 공덕으로 소원성취하시고, 건강 하시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범 우  
서울·경인 교구장  
실지사 주교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신년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원숭이는 십이지 중에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영장동물로서 갖가지 재주를 가진 만능꾼이며, 가족간의 사랑이 아주 지극하여 애정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건강과 성공을 지키는 동물로 상징되며 가장 영리한 동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볍고 간사하며 꾀 많고 흉내를 잘 내어 오히려 재수없는 동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원숭이를

## 서로 극진한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한 해가 됩시다!

중생의 간사한 마음에 곧잘 비유하기도 합니다. 『열반경』에 이르기를, '마음은 머물지 않고 요란하게 날뛰는 것이 원숭이와 같으니, 이렇고로 모든 악의 근본이 된다'고 하였는 바, 중생의 요란한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하였고, 마음이 곧 악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가법게 하지 않는 한 해가 되지 않도록 원숭이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원숭이의 부정적인 면 보다 좋은 점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재수없는 동물 보다 사랑과 건강, 성공을 가져다 주는 동물이며 인간과 가장 닮았으므로, 꾀가 많은 사람 보다 잔정이 많은 사람과 같은 동물로서 원숭이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한 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사람들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고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합시다.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지혜를 원숭이에게서 배우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정진합니다. 옴마니반메후.

## 진언염송으로 청정심을 이루자



정인화  
부산·경남 교구장

교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사다난했던 올미년은 이제 저물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나는 어떤 업을 지었을까? 한번 되돌아 보셨나요? 수 억 겁을 살아온 중생은 내가 알아 차리기도 전에 전생의 습으로, 현생의 그릇된 판단으로, 신구의(身口意)로 수많은 업을 쌓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새해불공이 시작됩니다. 종조 원정 대성사님은 새해불공을

한해의 살림불공이라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참회하고, 새해의 모든 기운을 모아 가정의 행복과 만중생의 성불을 서원하는 불사입니다. 교도 여러분들의 적극 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교도여러분 병신년 새해에는 지금 까지 수행하신 진언염송을 통해 즉신성불의 밀교의 목표를 이루시기를 서원합니다. 그 방편은 다들 잘 아시는 염송 수행입니다. 염송은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만들어 줍니다. 모든 걱정과 시름, 소원하는 바는 다 내려 두시고 염송을 하다보면 법계의 소리이자, 해탈의 지름길인 진언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더불어 깊은 숲속 맑은 웅달샘처럼 우리의 마음은 청정해 질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비로자나 부처님 전 간절히 서원 합니다. 성도합니다.

## 아낌없이 나누는 한해가 되기를



안 성  
대구·경북 교구장

교도여러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즉신성불의 대도를 따라 용맹 정진하신 교도여러분께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바라밀" 수행 중에는 "보시 바라밀" 수행이 있습니다. 보시는 나의 것을 나누어 모든 중생이 더불어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편

입니다. 원정 대성사의 종조 범설 집에는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식사와 재시와 법시니라. 식사는 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요, 재시는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로서 도와주고 국가 사회의 복지사업에 회사하는 것이요, 법시는 모든 중생을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는 것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불교도이며 총지종 교도입니다. 진언염송의 맑은 법을 받은 우리는 '나'라는 아상(我相)을 버리고, 주위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나보다도 더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우주 법계의 진리는 내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물도, 육신도, 잠시 빌려쓰는 것입니다. 빌려 쓴 것은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올 한해는 나의 빛을 갠 심정으로 보시 공덕을 베푸시기를 서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도합니다.

## 내가 먼저 참회를



지 정  
충청·전라 교구장

다사다난했던 올미년 한 해가 지나 가고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미년 한해동안 남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상처를 주는 행동과 말이 없었는지 되새겨보며 혹여 남에게 원한의 감정이 있으면 내가 먼저 잘못을 참회하고 원만한 인연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병신년 새해에는 모든 불자들의 재난이 소멸되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서원드립니다.

병신년은 반야의 지혜로 얽히고 설킨 인연, 참지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욕의 세계인 사바세계에서 해탈의 배를 타고 도솔천을 건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의미는 고태(苦海)의 중생들에게 생,노,병,사의 고통을 벗어나 이고득락(離苦得樂)의 해탈을 증득하는 것이며, 동체대비(同體大悲)로 육체적 고통인 병고와 경제적인 결핍상태인 가난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들이 행복한 세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병신년 한해에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의미를 깨닫고, 나와 너의 차별과 분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 시기와 질투가 없는 상호배려와 화합의 사회, 세상사 모든 일이 남의 잘못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연과 인과의 결과 인 업장에 의해 생겨난 것임을 깨닫고,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참회의 생활로 업장을 소멸하여 고난과 불운이 없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서원합니다.

### 謹賀新年 총기 45년 · 불기 2560년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전화사

주 교: 정사 범 상  
전수 정 원  
☎ 054-761-2466

### 개천사

주 교: 정사 우 인  
전수 보 명 심  
☎ 053-425-7910

### 국광사

주 교: 전수 혜 안 정  
☎ 054-772-8776

### 단음사

주 교: 정사 도 우  
전수 지 현  
☎ 054-333-0526

### 선립사

기로스승: 보 원  
심 지 장  
☎ 054-261-0310

### 수계사

기로스승: 안 주 화  
☎ 054-745-5207

### 수인사

주 교: 정사 안 성  
전수 유 가 해  
☎ 054-247-7613

### 승천사

기로스승: 원 봉  
지 선 행  
☎ 054-746-7434

### 제석사

주 교: 전수 행 원 심  
☎ 053-743-9812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평진기카역케미케진기페어

“각자의 분(分)을 지켜 책임을 다합시다”



진계 스님  
조계종 중정

새아침! 無遮(무차)의 붉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라 깨달음과 지혜의 광명이 비추니 마음마다 황금빛 서기가 감돌고 집집마다 가슴 열리는 웃음이 넘쳐납니다.

새해에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갑시다.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은 덜어주며, 더불어 기뻐하고 함께 하는 것에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인드라 망이요, 우주만유가 연기(緣起)로 이루어졌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때 이는 자신이 인정되고 존중되고 배려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비희사(慈悲喜捨)의 마음이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새해에는 총각을 녹여서 호미와 낫을 만들고 대립과 증오가 변하여 자비와 화합이 되어 전쟁과 공포와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기를 다 함께 祝手(축수) 합니다.

새해에는 참나를 바로 봅시다. 참나 속에 큰 지혜가 있고 참나 속에 행복이 있고 참나 속에 큰 평화가 있습니다. 참나에서 大同(대동)과 小康(소강)도 비롯됩니다.

곤강(崑崗)의 寶玉(보옥)도 탁마(琢磨)지 아니하면 가치 있는 보배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참나를 깨닫는 수행과 도덕을 절차(切磋)지 아니하면 어찌 가없는 生死(생사)의 바다를 건너겠습니까?

나고 날 적마다 영원한 행복과 복락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 인가?'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진정한 참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다함께 누리시다. 남의 할은 당기지 말고 남의 말은 타지 마시다!

남의 그림도 분변하지 말고 남의 일도 굳이 알려 하지 마시다.

(他弓莫挽 他馬莫騎 他非莫辨 他事莫知 타궁막만 타마막기 타비막면 타사막지).

새해의 새마당 으로 모두 함께 나아가서 각자의 분(分)을 지켜 책임을 다합시다.

새아침의 태양빛이 온 대지를 비추듯이 부처님의 사무량심이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에게 두루 하니, 동과 서가 하나 되고 남과 북이 합심하여 통일을 영원할 때 태평가를 울리는 통일국가 일등국민이 될 것입니다.

無雲生巖上하고 唯月落波心이라  
구름이 없으니 산마루가 드러나고  
오직 밝은 달은 물결 위에 떠있음이라.

불기 2560년 병신년 새해  
대한불교조계종 중정 진 계

아름다운 약속을 기억하라



도용 스님  
천태종 중정

戒定慧解知見生(계정혜해지견생)하시어  
三明六通道品發(삼명육통도품발)하시며

慈悲十力無畏起(자비십력무의기)하시어  
衆生善業因緣出(중생선업인연출)하시네.

계정혜 삼학을 닦아 열반의 세계를 증득하시어  
신통 자재 방편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시며  
불보살님 갖추신 지혜와 복덕 자비롭게 베푸시니  
중생들의 착한 업이 인연 따라 생겨나네.  
귀하게 만난 인간의 몸과 부처님 법에 감사하며  
사바세계 울적에 모든 이들과 기쁨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고자 서원했던  
그 아름다운 약속을 늘 기억하라.

丙申年(불기 2560년) 새해 새아침  
대한불교 천태종 중 정 기 도 용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씩 없는 정진



혜초 스님  
태고종 중정

상을 세우는 것도 이러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풍전등화에 놓인 국운을 살려내기 위해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의 제작이 병신년에 시작됐다는 것도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행자들은 원숭이는 지혜와 영리함을 겸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그 재주를 과신하거나 잔꾀를 경계하는 의미도 담고 있음을 마음의 경구(警句)로 삼아서, 어느 한순간도 헛된 마구니의 장난에 끌리지 말고 씩 없는 정진에 전력하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들은 수호, 장수, 부귀 등을 의미하는 원숭이의 이미지 및 지혜와 재치를 본받고자 하였던 조상들의 뜻을 승화시켜서, 지난시절의 혼란과 격동의 묵은 감정이나 슬픔은 모두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국가의 새로운 도약과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운을 좌우하는 역동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의미 깊은 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2016)년 원묘  
한국불교 태고종 중정 혜초

금년 병신(丙申) 새해를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병(丙)은 붉은색을 뜻하고, 신(申)이 상징하는 동물을 원숭이라고 정한데서 유래한 까닭입니다.

예부터 동국무원(東國無猿)이라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원숭이가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장스님 의 영향으로 원숭이가 손오공처럼 잡신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여겼으며, 큰 건축물 또는 사찰의 지붕 등에 원숭이

함께 하는 큰 길을 열어 가자



성초 정사  
진각종 총인

수행과 교화의 정도를 실답게 펼쳐갑시다. 법계는 그대로 진리가 가득한 세상이거늘 눈앞에 불의와 부조리가 넘쳐나듯 보이더라도 사회정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립과 투쟁의 좁은 길을 걷기보다 화해와 상생의 더 큰 길을 넘어가서 진정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정심正心이 일어나면 사심邪心은 사라지고, 공도公道를 세우면 사도私道는 멈추나니, 내 허물을 먼저 깨달아서 사욕을 극복하면, 정치안정과 경제번영이 지속적인 터전을 잡고, 상부相扶하고 예경하는 국가 사회가 건설됩니다.

앞선 사람이 네 탓보다 내 탓을 우선 살피고 뒤의 사람은 내 것과 더불어 남의 것도 쟁겨서 분열과 갈등의 파열음이 화음으로 승화하는 자타상보自他相輔의 공영共榮 사회를 누리기 위해 새해의 서기瑞氣가 가득하도록 마음모아 정진합시다.

병신년 원단  
대한불교진각종 총인 성초

새해의 대일광명大日光明이 온 세상을 밝히고 천지의 생명 기운이 만물을 새롭게 살려내니 사람마다 품은 원력이 알아알아 영글어서 못 중생 웃음소리 곳곳마다 곱게 피어나는 함께 하는 또 한해를 열어가도록 서원합니다. 진각종문의 새불교운동이 칠십년을 맞이하니 종단의 초석을 다지면서 융맹정진으로 생애를 바친 선대스승의 은혜를 다시금 심중에 깊이 새기고 즉신성불과 현세정화의 정로를 밝게 받들어서

- 교훈 : 신의 · 성실 · 정직
- 교목 : 보리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謹賀新年  
충기 45년 · 불기 2560년

이사장 : 법등 정사  
정교 : 법선 정사  
교장 : 탁상달  
교감 : 김재근  
행정실장 : 석동훈

교직원 일동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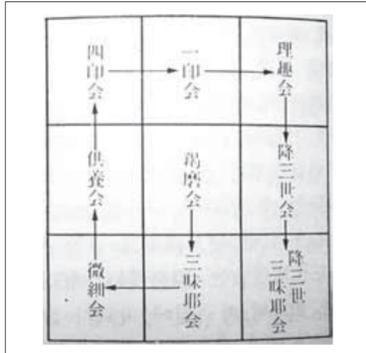
# 금강계 만다라의 제 존(諸尊)

지난 호까지 총 12회에 걸쳐 태장계만다라의 제 존(諸尊)에 대해 살펴보았다. 태장계만다라는 '어머니 태 속에 아이가 품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중생들의 마음 속에 품어져 있는 불성(佛性)을 길러낸다는 것을 상징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태아(胎兒)가 모태(母胎)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탄생과 성장과정이 있듯이 중생 또한 수행을 통해 불성(佛性)을 길러내는 것을 도상화(圖像化)한 것이 바로 태장생만다라(胎藏生曼荼羅), 즉 태장계만다라이다. 여기에 부처님의 교설과 수행적 교리가 함장되어 있다.

따라서 태장만다라는 대비(大悲)하신 부처님의 마음[보리심(菩提心)]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 안에서 인간과 우주가 불리일체(不離一體)가 되어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 즉 교화활동의 뜻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태장만다라는 중존(中尊)인 대일여래가 갖추고 있는 종교적 구원인 대비(大悲)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그 활동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퍼져나가는 도식(圖式)을 취하고 있다.

태장만다라를 구성하는 제 존(諸尊)의 명칭과 그 배치를 보면, 대승불교 안에 포섭된 방대한 수의 부처와 보살, 명왕, 그리고 힌두교의 제신(諸神)과 성숙(聖宿)과 귀신(鬼神)에 이르는 제 존(諸尊)이 오묘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힌두교로부터 수용한 제신(諸神)을 그 모양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격과 공능(功能)에



▲ 그림2) 금강계만다라의 하전문(하향문)



▲ 그림3) 금강계만다라의 상전문(향상문)

말하는 회(會)는 집단, 구획을 뜻한다.

금강계만다라는 여래가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과 수행자의 수행과정, 경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구회만다라는 <그림2>와 같이 중앙의 성신회(成身會)가 중심이 되어 항삼세삼매야회(降三世三昧耶會)에 이르도록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다시 역순으로 <그림3>과 같이 항삼세삼매야회에서 성신회에 이르는 구조를 하고 있다. 전자의 구조는 여래가 중생을 교화 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후자의 역순은 수행자의 수행의 순서와 그 경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역순은 중생이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며, 전자를 과(果)로부터 인(因)으로 나아가는 하전문(下轉門) 또는 향하문(向下門)이라고 하고, 후자를 인(因)으로부터 과(果)로 나아가는 상전문(上轉門) 또는 향상문(向上門)이라고 한다.

하전문[향하문]은 <그림2>와 같고, 상전문[향상문]은 <그림3>과 같다.

하전문, 즉 성신회로부터 항삼세삼매야회에 이르는 과정은 절대자인 법신이 그 절대 세계로부터 중생의 세계로 전개하고 거기에서 중생과 절대자가 만나 교합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절대계(絕對界)로부터 상대계(相對界)로, 이상세계로부터 현실세계로 나아가는 하향적인 활동이다.

즉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실천적 활동이다.

반대로, 항삼세삼매야회로부터 성신회에 이르는 상전문은 현실에서 이상으로, 즉 깨달음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절대자인 법신의 절대세계에 찾아 들어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것은 중생인 행자가 미혹의 현실세계로부터 절대세계에 나아가 절대자를 만나 교합하는 것이다. 즉 상구보리(上求菩提)의 수행활동이다.

이와같이 하전문과 상전문의 구조는 보리심의 본성인 자성(自性)의 자각과 수행자의 관법(觀法)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됨을 상징하는 것이다.

<다음호에서 금강계만다라의 성신회에 대해 살펴본다>



▲ 그림1) 금강계 만다라

따라 여러 무리로 나누어진다. 이것이 태장계만다라에서 나타나는 12개의 원(院)이다.

다시 말해서 힌두교의 제신(諸神)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태장계만다라는 밀교 독자의 존(尊)으로 변용(變容)되어 있는 금강계만다라와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태장계만다라는 『대일경』에 설한 교설에 따라 여러 제존을 도상화(圖像化)한 것인데, 태장만다라의 화도(畵圖)는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방향의 방사형(放射形)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제존(諸尊)이 단계적으로 배치되어 밖으로 퍼져 나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부처와 보살, 명왕, 제천, 신(神) 등의 기능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태장계만다라의 존상들은 각각 소속과 역할, 기능들을 하나씩 지니고 있다. 제존(諸尊)의 개별성을 의미한다. 또한 개별성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같은 원(院)에 있는 존상(尊像)들이 같은 성격과 공능(功能)으로 연결된다. 12대원 속의 제존들이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금강계는 태장계와 달리 불보살들이 모습과 형상을 달리하며 수차에 걸쳐 등장한다. 제 존(諸尊)의 연속성을 의미한다. 전체 속에서 개개의 구획[會]들이 똑같은 형태와 구조를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금강계만다라이다.

『금강정경』의 실천철학을 도상화(圖像化)한 것이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이다

금강계만다라는 『금강정경』의 실천철학을 도상화(圖像化)한 것이다.

이 만다라에는 1461존이 배치되어 있다. 무수한 불보살과 제존들이 나오는데 중앙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대일여래의 별덕(別德)을 상징하고 있다. 진인 수행자는 이 만다라를 통하여 그 제존(諸尊)들의 덕성(德性)을 체험하여 마침내 대일여래와의 일체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금강계만다라의 중심되는 행법이다.

금강계는 산스크리트 vajra-dhātu의 한역으로, 금강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깨뜨려지지 않는 깨달음의 지혜를 뜻한다. 금강계만다라의 도상(圖相)은 금강과 같이 부서지지 아니하는 굳건한 깨달음의 지혜를 내열한 것이다.

금강계만다라는 대일여래를 중존으로 하는 4불을 중심으로 사방에 제존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 제존에는 모두 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 밀교의 독특한 보살로 재생되고 있다.

금강계 만다라의 구조는 태장만다라가 방사형(放射形)으로 넓혀져 나가는 것과는 달리 <그림1>과 같이 방형(方形)으로 구획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이루어져 있다. 아홉개의 작은 만다라가 모여서 이루어졌다 해서 금강계만다라를 구회만다라(九會曼荼羅)라고도 한다. 여기서

謹賀新年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총기 45년 · 불기 2560년

##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謹賀新年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총기 45년 · 불기 2560년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현문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층 ☎ 02-445-2326

# 따뜻한 이웃을 위한 연탄나눔 행사 열려

## 아름다운동행, 동짓날 사랑의 연탄배분 활동 실시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과 불교포럼(대표 김동건)은 지난 22일 서울 흥제3동 개미마을에서 저소득 가정에 연탄 배달봉사를 진행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이자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을 비롯해 사회부장 정문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 사회

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스님, 사회국장 지상스님, 불교포럼 김동건 대표, 중앙인도회 이기흥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사랑의 연탄배분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아름다운동행 후원자, 지원단 및 봉사단, 조계사 청년회, 일반 자원봉사자 등 총 100여명이 함께 연탄

배분 활동에 참여해, 개미마을 8가구에 1,600장의 연탄을 배분했다.

아프리카 학교 건립기금을 전달하는 등 불교계 안팎으로 나눔을 실천해 온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인 아이돌 그룹 '순정소년'도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함께했다.

자승스님은 직접 연탄을 배분하고,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노부부 집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하게 잘 사시라"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고 염주와 수저 세트 그리고 동지를 맞이하여 팔죽도 함께 전달했다.

연탄을 지원받은 박상기(75세) 할머니는 "맨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 너무 춥고 힘든데, 이렇게 연탄을 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항상 스님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 “대불련 활성화와 복원...프로젝트 내년 시행”

## 대불련총동문회 송년의 밤 개최...대불련장학금 3100만원 전달

### 15만 동문 결집위한 1차명부 2월 발간...(사)대불, 대불련, 총동문회 상호 보완관계 이룩



대불련 활성화와 복원에 대불련총동문회가 적극 나선다. 또 2천만원을 들여 공모사업을 벌인 대불련활성화 프로젝트 내년 2월 완성돼 시행에 나선다. 15만 동문 결집위한 4000여명 1차명부도 2월에 발간한다.

대불련 동문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임을 확인하고 '열어갈 50년'을 위해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2015년 대불련 동문 '송년의 밤'이 12월 25일(금) 오후 4시,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 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상황리에 개최됐다.

이자리에서 백효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대불련은 올 한해 동국대 사태와 대중공사등에 적극 참여하여 불교 발전에 이바지 했으며, 대불련

활성화와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사)대불 중심 대불련과 총동문회 공모사업을 벌인 대불련활성화 프로젝트 내년 2월 완성돼 시행에 나선다. 15만 동문 결집위한 4000여명 1차명부도 2월에 발간한다.

이 자리에서 백효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선출된 박태우 대불련 회장을 적극 지원하여 각 대학 불교학생회 복원에 나서길 기대한다"며 "원숭이해 부처님 정신으로 청년불교가 더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불련 학생들과 각 학교 불교동아리에 장학금 3100만원이 전달됐다. 일반장학금은 대구카톨릭대 운동인, 서울여자간호대 이명진, 전남대 사태와 대중공사등에 적극 참여하여 불교 발전에 이바지 했으며, 대불련

동아대 이예빈, 부경대 김종태, 덕성여대 김지연, 서강대 권민경, 숭실대 손경환 학생이다.

단체지원금 대상 단체는 강원대,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진주교육대, 동덕여대, 이화여대 등 6개 학교이다.

또 올해 새로 제정된 공로상 시상도 있었다. 지부장 임문우 대구경북지부장 홍희권 경남지부장, 지부임원 울산지부 황백수 포항지부 최병천, 밴드리더 제창모 허양미, 본부임원 이민우 재정부위원장 김원우 홍보출판위원장, 특별상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이다.

2천만원을 들여 공모사업을 벌인 대불련활성화 프로젝트 중간발표에서는 활동이 침체에 빠진 각 대학 불교학생회에 대한 현실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고영란 동문의 해금연주 축하공연과 전체 건배제의 등이 이어졌다.

3부 화합마당에서는 내빈 스님 초기선배 소개, 대불련 중앙회장단 소개, 전국 각 지부장 인사 및 지부별 장기자랑, 학번등 그룹 및 개인별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참가자 숫자 맞추기, 드레스코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동근원을 만든 뒤 손을 잡고 대불련가를 부르며 회향했다.

# 태고종 14대 중앙총회 12월 15일 개원, 상반기 의장에 설운, 부의장 법담·시각 스님 선출

## 예산 61억7천3백여만원·사업 승인 '비대위 부적법 단체' 재확인·결의

태고종 제14대 중앙총회가 12월 15일 한국불교전통문화진흥관 1층 대회의실에서 총회위원 49명 중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제123회 정기중앙총회를 열어 의장단 선출 및 2016년도 종단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 등 현안을 논의해 통과시켰다.

참석위원 중 가장 연장자인 법진스님(서울남부교구)을 임시의장으로 추대하고 상반기 중앙총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됐다.

의장에는 소견 발표 후 진행된 투표에서 대운스님이 16표, 설운스님이 24표를 얻어 설운스님이 제 14대 중앙총회 상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수석부의장에는 전체 31표를 얻은 법담스님이, 차석부의장에는 30표를 얻은 시각스님이 선출됐다.

이러 중앙총회는 토의사항에 들어가 먼저 각 교구에서 추대된 덕화 각운 산운 태우 법장 수산 성암 금음 경담 용태 각림 명관 지성 지족 남파 지암 혜경 지산(해운) 지허 스님 등 19명을 제 4대 원로회의



의원으로 인준했다.

교육부원장에 백운스님 강원교구총무원장, 법무위원장에 도광스님 전북교구총무원장을 선출 인준 동의했다.

또한 총무원 총무부장 도안스님, 규정부장 도법스님, 재무부장 정안스님, 홍보부장 자우스님을 인준했다.

중앙총회는 이어 '종단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 무효 확인 및 종단 비상대책위원회 부존재 확인 의결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총회는 또한 내년(2016)도 종단 세입 세출 예산 총 61억7339만7000원과 사업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어 전 중앙총회의장 해공스님이 관리하던 종단교육기금을 총무원으로 이전토록 결의했다.

또 선암사 수호대책위원회 구성은 이전 21명위는 해제하고, 9인 위원회를 선암사 4인, 총무원 3인, 중회 2인등으로 새로 구성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중앙총회위원 2명은 의장단에 선임을 위임했다.

# 천태종 해운대 해영사 건립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연말 이웃돕기 자비의쌀 전달식

대한불교 천태종 해영사가 동절기 맞이 자비의 쌀나눔 행사를 24일 오전 11시에 진행했다.

해운대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 장애인, 저소득 아동에게 총 1500kg의 쌀을 나누어줄 예정으로 연말을 맞아 추운 겨울을 어렵게 이겨내야 하는 해운대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영사 주지 무원스님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마음이 더 중요한 만큼 마음의 진리를 찾아서 행복을 만들어 가도록 하자."며 "추운 겨울 함께 나누며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謹賀新年

총기 45년 · 불기 2560년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만보사

주 교: 정사 승원  
전수 묘원화

☎ 042-255-7919

## 백월사

주 교: 전수 환수원

☎ 042-527-5470

## 법황사

주 교: 전수 수심정  
기로스승 지광

☎ 062-676-0744

## 혜정사

주 교: 전수 진일심

☎ 043-256-3813

## 흥국사

주 교: 정사 지정

☎ 063-224-4358

## 중원사

주 교: 전수 정정심

☎ 043-833-0399

###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3호  
범어사비로자나불회도 (梵魚寺毘盧舍那佛會圖)  
소재지: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시대: 조선시대



▲문화재자료 제13호  
범어사 비로자나불회도

범어사에 보존되어 있는 그림으로,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여러 보살들과 제자상들을 그린 비로자

나 불회도이다.

이 비로자나불회도는 비단 바탕에 채색하여 그려진 것으로, 화면은 중앙에 크게 강조된 비로자나불 본존을 중심으로 여러 보살들과 제자상들이 배치되어 있다. 본존의 육신부는 황백토를 바르고, 육신선은 가는 담묵선으로 처리하였다. 가사는 주색을 바르고 그 위에 백색으로 원화문(圓花文)과 소형화문(小形花文)을 흩뜨리고 있다. 본존의 머리와 몸 뒤에는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상징하는 광배(光背)가 각각 원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한편 권속들 중 얼굴의 표현에 있어서 눈동자가 생략되거나 입술색 표현에 미완성 인물들이

다소 보이는데, 아마도 안료가 박락되어 하묘선이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늘 부분은 바탕이 상당히 떨어져 나간 상태이며, 구름무늬는 자색과 녹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화면 아랫부분의 중앙에 그림의 내력을 기록한 화기(畵記)가 있는데 아랫부분은 바탕이 떨어져 나갔으며, 화기 부분도 박락이 심한 편이다.

범어사 비로자나불회도는 섬세한 인물 묘사와 녹색·주색 위주의 선명한 색채 등이 돋보이는 조선 후기 작품으로, 특히 19세기 각도 상들의 흐름을 연결하는 작품으로 가치가 있다. 자료제공=문화재청



내용참조: "불교총전" 자기에 대한 덕의편 403P-15

##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 20. 보경수(寶鏡手) 진언



음 미보라 나락사 바아라 만다라 흠 바탁  
큰 지혜를 얻으려거든 이 진언을 외우라

## 謹賀新年

총기 45년 · 불기 2560년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서울경인교구

지 회장: 김 은 숙  
부 회장: 박 정 회  
          손 경 욱  
총 무: 이 인 성  
          홍 순 화  
재 무: 양 제 범  
감 사: 신 일 생  
          이 연 수

### 부산경남교구

지 회장: 신 인 록  
총 무: 정 남 선

### 대구경북교구

지 회장: 최 윤 정  
총 무: 권 순 복

### 충청전라교구

지 회장: 민 순 분  
총 무: 이 민 자

각 사원  
신정회 회장과  
임원 일동



# 동양에서 온 문화테러리스트 비디오 아트 백남준의 예술 속으로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1월 29일까지



▲ 백남준

병신년 새해가 밝았다. 붉은 원숭이의 해, 새해맞이는 광화문 인근에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

서울 도심 한복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안팎으로 미디어아트 전시가 한창이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는 미디어아트 선구자 백남준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백남준 그루브 흥' 전시가, 회관 바깥 대극장 기둥에선 미디어 파사드가 상영 중이다.

세종현대모터갤러리가 선보인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맷 파이크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대표 작가 이응백의 작품이다.

먼저 '백남준 그루브 흥' 전시부터 살펴보자. 이 전시는 지난 4월 미술관을 재개관한 후 미술관이 선보이는 첫 기획전이다. 백남준 서거 10주기가 되는 1월 29일까지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비디오아트 창시자, TV로봇으로 알려진 백남준 선생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한다. 백남준의 2000년 작품 '호랑이는 살아 있다-월금,첼로',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작품인 '보이스 북스(Beuys Vox)', 그리고 '피버 옵티카(Phiber Optik)' 등을 선보인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국 영상자료원(EAI)이 백스튜디오로부터 공식승인 받아 대역한 영상작품과 기록물 8점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귀중한 전시다.

'백남준 그루브 흥'이 특별한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백남준 작품에 대해 그 외형뿐만 아니라 작품 속 영상들의 내용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기 때문이다.

전시장에는 백남준 선생이 제안하는 자신의 작품 감상법이 있다. 첫째, 셀프 없이 너 스스로 해라. 둘째, 예술을 고상하게 만드는 좌대를 치워버려라. 셋째, 나의 비디오아트를 보기 위해서는 의자가 필요하다. 자 이제 의자를 준비해 앉았다면 본격적인 작품 감상을 시작해야 한다. 백남준 선생은 이렇게 제안한다. '좌우간 나의 작품을 30분 이상은 보라.' '눈을 4분의 3 감고 보라.' '극단적인 집중을 하라.' '그러니 직접 해보라.' 이 네 가지이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하는 것은 '처음에는 재미있겠지만, 나중에는 필수 지루해질 것이다. 그러니 견딜 것.' 재미를 다시 느낄 때까지 꾸준히 견디라고 제안한다. 이렇게 견디고 나면 '이러한 파동이 쌓이다 보면, 당신은 아마도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의



▲ 백남준 그루브 흥 포스터

차원을 뛰어넘는 경지에 다다를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전시장의 입구에 설치된 작품 감상법을 충분히 숙지했다면 벽에 쓰여 있는 백남준 선생의 말을 음미해보자. "보통 사람들에게 100%의 자유가 필요하지만 전위예술을 하려면 1천%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달을 보면서 토끼가 떡방아 찧는 장면을 상상하는 등, 달을 중요한 볼거리로 여겼기 때문에 달이 가장 오래된 TV이다." 백남준 선생의 말 속에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선생의 일대기도 그루브를 타듯 벽면에 지하철 노선도처럼 표현돼 있어 재미를 더한다.

미디어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은 누구인가.

백남준 선생은 일제강점기가 한창이던 1932년 여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와 작곡을 배우며 음악적인 재능을 뽐냈던 그는 1949년 홍콩에서 유학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온 가족으로 일본으로 이주해 미술사학 및 음악사학을 전공했다. 1956년 독일로 유학을 떠난 백남준 선생은 뮌헨대학교와 쾰른대학교 등에서 서양의 건축, 음악사, 철학 등을 공부하며 내공을 다졌다.

1958년은 백남준 선생에게 특별한 해였다. 현대음악가 존 케이지를 만났기 때문이다. 존 케이지는 20세기 전위예술 분야의 가장 위대하고 독창적인 작곡가이자 음악이론가, 작가, 철학자, 예술가라고 불린다.



▲ TV로봇

무대가 비좁아 오케스트라가 들어갈 자리가 없자 피아노 줄에 이물질은 삼입해 다양한 소리를 내는 이른바 '조작된 피아노(prepared piano)'를 고안한 일화가 유명하다. 존 케이지는 20세기 작곡가 중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인물이자 문화 예술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기도 하다. 때문에 백남준을 비롯해 평생 공동 작업을 했던 무용가 머스 커닝햄과 화가, 설치예술가, 영화감독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40년대 후반부터 존 케이지는 선불교 사상에 심취해 그의 작품에는 선불교 사상이 묻어있다. '찰나'의 개념을 작품의 대주제로 도입했던 것. 그의 음악이론을 정립하는데도 선불교 사상은 큰 역할을 했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지워버리는 탈세간의 불교적인 방안이 바로 음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케이지의 '찰나'의 개념은 제자인 백남준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 말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한 독일 라인 지역의 음악 퍼포먼스의 장에서 백남준은 '아시아에서 온 문화테러리스트'(엘런 카프로)라고 불릴 정도의 탁월한 퍼포머로 활약했다. 1959년 '존 케이지에게 보내는 경의'에서 피아노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바이올린을 파괴하거나 (바이올린 솔로) 존 케이지의 베타이를 잘라버린 퍼포먼스(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습곡)가 특히 유명하다.

존 케이지의 이름을 본 따 만든 '존 케이지가 새장 안에'라는 작품은 케이지가 의미하는 새장 안에 피아노 건반과 존 케이지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남준 선생이 존 케이지에게 바치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경기도에 있는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이뿐이라. 백남준 선생은 1961년 카를하인츠 슈토크하우젠의 음악 퍼포먼스 '오리기날레'에서 머리와 넥타이로 인크를 묻혀 두루마리에 흔적을 남기는 독특한 퍼포먼스 머리를 위한 선을 보여주기도 했다. 1960년대 초반 조지 마키우나스, 요셉 보이스 등을 만나 플럭서스 활동을 전개했다. 다다이즘에 영향을 받은 플럭서스는 헤라클레이투스 주장한 '변화 생성의 흐름'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이벤트와 퍼포먼스 그리고 음악에 주력했고, 세계로 퍼져나갔다.

백남준 선생의 작품은 찰나의 순간을 영상으로 담아낸다. 찰나와 영원, 그 어딘가의 지점을 담아내 깊이 사유하게 만든다. 백남준 선생은 비디오아트는 첨단 소재로 시공을 초월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낸다. 'TV부처'라는 작품은 선생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비디오 조각 중 하나이다. 불상이 모니터와 마주하고 앉아있는 이 작품은 모니터 뒤의 카메라가 불상의 정면을 촬영해 보여준다. 선생은 불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분신으로 여겼던 것이다. 불상 대신 선생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설 때는 보살로 분장하기도 했다.

'선(禪)을 위한 TV' '카르마' '손부처' '테크노 부처' '머리를 위한 선' '영화를 위한 선' 등 선생은 선사상을 담은 작품들을 꾸준히 작업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불교적인 소재로 작업한 작품은 나오지 않았지만 선생의 작품을 아우르는 찰나의 의미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작품 속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 편견에 갇힌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백남준 그루브 흥'을 만끽했다면 이제 밖으로 나와 세종문화회관의 기둥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현대자동차의 후원으로 조성된 '세종 현대 모터갤러리'에서 이응백의 "I를 위한 컬렉션", 맷 파이크의 '러닝맨' 등이 상영되고 있다. 건물 외벽이 최신의 미디어아트 전문 상영 전시장으로 변신한 것이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전면에 세종대로 방향으로 나 있는 6개 기둥에 톨 스크린 5개가 설치된다. 빛의 밝기를 고려해 로비 방향에서 프로젝터를 사용해 스크린에 영상물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전시를 보여준다. 스크린 한 개의 크기는 가로 46m, 세로 8m이며, 5개 스크린을 고려한 총 면적은 가로 23m, 세로 8m이다. 무료로 감상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일몰 후 30분부터 밤 11시까지이다. 앞으로 5년간 연중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 상영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내부에는 같은 기간 이병찬의 'Urban Cream' 빠져보자. ture, 한기창의 '웬트겐의 정원'이 전시된다. LED, 전동모터, X선 필름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미디어아트 작품이다.

1월 29일까지 진행되는 다양한 미디어아트의 세계에서 병신년의 새 기운을 담백 받아보자. 강지연 구성적가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중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재) 불교총지중 유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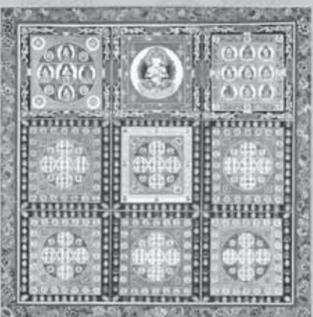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태장계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태장계 만다라 \_ 服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계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성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불교총지종 본산 '총지사' 서원당

불교의 생활화·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종**

총기45년 새로운 모습으로  
 교도님들과 전국의 불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원정대심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통밀교의 흥포를 위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한해 아낌없는 심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교도님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총기 45년 새해불공  
 총기 45년 1월 4일 ~ 10일  
 장소 : 전국 서원당